

자동차산업

미국 자동차 관세 관련 업데이트

● 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
02. 6454-4866

joonsung.kim@meritz.co.kr

▶ 3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데드라인

- 오는 5월 18일 (토)은 기존 예정일 (2월 17일)에서 90일 연기됐던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 관세 (25%) 부과 결정 시기
- 현재 자동차 업종 주가흐름은 지난 2월과 유사한 상황 (영업지표 호전 통한 기업가치 개선 이후 대외변수 우려감 확대로 기업가치 조정 국면 진입)
-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판단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, 시점과 강도에 대한 내용정리를 통해 5월 18일 이후의 투자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두는 것이 필요

▶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한 참고사항 정리

- 5월 8일 Reuter: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 인터뷰에 근거해 미/중 무역협상 + 일본/유럽과의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다시금 180일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
- 5월 13일 Reuter: 무역협상 진행 중인 미국이 관세부과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EU 통상집행 수석대표 Cecilia Malmstroem의 인터뷰를 보도
- 지난 2월 17일 관세부과 연기가 미/중 무역협상 연장 결정에 후행 했다는 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상 당사자들의 연기 기대감 발생

▶ 관세 부과 대상 및 강도에 대한 참고사항 정리

- 지난 18년 3월 이후 136건의 무역협상 관련 트럼프의 언급 중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포함 내역은 0건, 대부분 중국/ 일본/ 유럽에 집중
- 2월 17일 미국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관세부과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,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배제
- 지난 18년 FTA 재협상 합의한 멕시코/ 캐나다는 수입량 쿼터제 (연간 각각 260만대 vs. 멕시코 수출 160만대 + 캐나다 수출 210만대)에 합의하며 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
- NAFTA와 마찬가지로 18년 FTA 재협상을 체결한 한국이 동일 강도의 쿼터제로 간다면 연간 120만대 (수출 80만대 내외)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 가능

▶ 관세부과 우려 (Section 232)는 지난 18년 연중 글로벌 자동차 업종평균 1yr forward PER을 20% 이상 하락시켰던 무거운 주제. 해당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종은 큰 수혜도, 큰 피해도 가능한 상황. 면밀한 뉴스 흐름 확인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.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